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14. Vol. 25. No. 2. pp. 145~171.
ISSN 1225-6336(Print) / 2288-8799(Online)
http://dx.doi.org/10.14816/sky.2014.05.73.145

청소년 자살시도 예측변인: 자살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정묘순* · 서수균**

초 록

본 연구는 자살위기로 진단된 청소년들의 자살시도 유무를 변별하는 변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서행동선별검사 결과 학교 상담실에서 자살위기로 관리 받고 있는 부산소재 남여청소년 95명을 대상으로 무망감, 품행장애, 충동성, 알콜/약물남용, 공격성 척도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을 자살시도 집단과 비시도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충동성, 공격성, 알콜/약물남용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 청소년들에 비해 더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이며 알콜이나 약물을 남용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살시도집단과 비시도집단을 준거변인으로 5개 변인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고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시판별분석에서는 예측변인 5개 모두 자살시도 유무를 변별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자살시도의 정확분류율은 71.6%였다. 한편 단계적 판별분석 결과 무망감과 공격성 두 변인이 자살시도 집단과 비시도 집단을 유의하게 변별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단계적 판별분석으로 도출된 함수의 정확분류율이 72.6%이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을 시도 집단으로 분류한 비율이 72.4%에 이르렀다. 연구 결과 무망감과 공격성이 자살생각이 있는 청소년들이 자살시도를 할 것인지를 효율적으로 예측해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개입 등 자살예방을 위한 실제적인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자살시도, 무망감, 공격성

* 동래원예고등학교
**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sgseo@pusan.ac.kr

Ⅰ. 문제제기

통계청(2012) ‘2011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2011년 국내 자살률은 10만 명당 31.7%로 하루 43.6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어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10대의 자살률은 매년 증가해 청소년 자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자살이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 (김진화 외, 2002)로서, 자살생각, 자살시도, 자살완결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Harwood & Jacoby, 2000). 자살 위험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은 자살사고와 자살행동으로 구별하는 것이다(Evans, Howton & Rodham, 2004; Gould, Greenberg, Velting & Shaffer, 2003; Lewinsohn, Rodde & Seeley, 1996). 자살생각은 자살을 시도하기 전 일련의 사고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고(하정희, 안성희, 2008; O'Carroll et al., 1996) 일시적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실제로 자살을 감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포함한다(김현순, 김병석, 2008).

자살생각은 자살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자살행동은 자살을 실행에 옮기는 것 즉 언어적 위협과 이전의 자살시도를 포함한다(Verona & Javdani, 2011). 자살에 성공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살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감안할 때 자살은 자살을 의도하거나 계획하는 자살사고 과정과 타인에게 자살하겠다고 말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자살행동 과정으로 구별하여 연구할 수 있겠다. 이 둘은 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살위험성이라는 동일선상에서 연구되어야 하지만 위험성의 판단과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살에 관한 연구는 자살생각을 주제로 많이 수행되고 있는 반면(이경진, 조성호, 2004; 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6), 윤리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살시도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살시도(서동우, 2001; 신의진, 2003)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한편 자살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이 자살시도를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자살생각과 구별되는 자살시도와 관련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더욱 핵심적인 주제이다. 자살생각이 심각했던 사람들의 42%와 자살생각이 경미했던 사람의 34%가 나중에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차미영, 2010). 자살의도 없이 단순히 자해하는 청소년들은 우울과 자살생각, 삶의 의미 등에

서 자살의도를 가진 자살시도 집단과 구별되었고(Muehlenkamp & Gutierrez, 2007),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지지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ausch & Gutierrez, 2010).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살위기가 자살생각은 높으나 자살시도가 없는 경우, 자살생각과 자살의도 없이 자해를 경험하는 경우 그리고 자살생각을 동반한 의도적인 자살시도의 경우로 구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살을 이해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을 가진 청소년과 자살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살시도 청소년을 구별하고, 자살생각이 높은 청소년들 중 자살시도를 할 위험이 높은 요인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자살위험성이라는 동일 선상에서 자살생각에서 자살시도로 옮겨가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자살위기 및 자살시도와의 관련성이 제기되어온 주요 변인들 중에서 자살생각과 구별되며 자살시도를 특징짓는 주요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자살시도 집단과 자살비시도 집단은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주요 요인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자살시도 집단과 자살비시도 집단을 유의미하게 변별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Ⅱ. 문헌 고찰

1. 무망감

청소년 자살의 가장 대표적인 위험 요인인 우울은 자살충동의 가장 강한 예측인자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Kandel, Ravens & Davis, 1991; Peter, Paul & John, 1994). 우울이 자살생각과 직접 상관이 있으며(배성구, 1998; 최바울, 고은영, 이소연, 이은지, 서영석, 2011; 이해경 외, 2006) 자살 시도로 입원한 환자들 대부분이 우울증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우울증 환자가 일생동안 자살할 확률은 약 1-2%로서(Bostwick & Pankratz, 2000; Papakostas et al., 2003)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모두 우울했던 것은

아니며 또한 우울하다고해서 반드시 자살생각을 나타내거나 자살을 시도하지는 않는다(Ayyash-Abdo, 2002). 우울증은 압도적으로 자살생각의 위험과 관련되고 자살생각을 경유하여 자살시도로 연결되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계적 회귀 분석결과 충동성이 투입되었을 경우 우울은 더 이상 자살시도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erba, Ferdinand, van der Ende & Verhukst, 2007; Javdani, Sadeh & Verona, 2001).

한편, 우울의 하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무망감은 자살생각 뿐 아니라 자살시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무망감은 개인적 실패에 대한 지각, 의기소침, 죄책감, 비참함과 불행을 자신이나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신념이다. Beck(1986)은 무망감이 성공하는 자살의 가장 좋은 단일 예측인자라고 하였으며, 연구들은 무망감이 자살시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박경, 2004; 엄태환, 2008; 이현지, 김명희, 2007; Beevers & Miller, 2004). Beck, Kovas and Weissman(1975)의 연구에서 우울의 영향력을 통제한 무망감의 영향이 무망감을 통제한 우울의 영향보다 더 크게 나타나 우울보다 무망감이 자살을 더 잘 예측한다고 보았다. 한편 무망감이 청소년의 자살시도와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김현순, 김병석, 2008;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Borgers, Spirito & Donaldson, 1998). 또한 사회적 지지와 무망감이 상호작용하여 자살에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극통이 무망감과 자살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엄태완, 2008; Holden, Mehta, Cunningham & Mcleod, 2001), 여러 요인들의 영향에 따라 무망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으므로 특히 청소년의 경우 무망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품행장애/반사회적 행동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병리는 자살과 관련된 가장 일관성 있는 요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자살시도를 한 청소년의 거의 80%정도가 정신병리 증상을 나타내고 대부분 공병 장애로 고통 받는다(Bridge, Goldstein & Brent, 2006). 정신병리를 일반적으로 내현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이해할 때 우울, 불안 등의 내현화 문제가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주는 반면(Ross & Heath, 2002; Weissman et al., 1999) 품행장애와 반사회적 행동 등 외현화 문제는 자살시도와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Bridge

et al., 2006; Hills, Afifi, Cox, Bienvenu & Sareen, 2009) 자살생각과는 무관하다 (Espoito & Clum 2003; Herba et al., 2007). 청소년 자살시도자의 절반이 품행장애를 가지고 있거나(신의진, 2003; Shaffer et al., 1996) 67%가 반사회적 행동을 보인 것(Shaffer, 1988)은 자살시도에 미치는 외현화 요인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Hills et al.(2009)은 외현화 정신병리 요인이 우울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자살시도에 기여하는 것으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 차원의 하나인 품행장애 및 반사회성 요인이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3. 알콜/약물남용

최근에 알콜/약물남용을 청소년 자살위기의 새로운 차원으로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Bridge et al., 2006; Gould et al., 2003), Rowe, Liddle and Dakof(2001)는 알콜/약물남용을 청소년의 외현화 장애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경험적 증거들을 발견했다. 이에 Verona와 Javdani(2011)는 정신병리를 내현화, 외현화, 알콜/약물남용 요인이라는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자살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우울과 불안 요인은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모두에 영향을 주었고 외현화 문제는 자살생각에만 영향을 주었다.

Verona와 Javdani(2011)의 연구에서 외현화 차원과 분리한 알콜, 대마 등 약물남용 요인은 자살시도에만 관련되는 것으로 드러나 자살시도를 촉발하는 정신병리 요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구된다. 약물중독을 포함하여 적어도 한 가지 외현화 장애를 가진 성인은 자살시도경험이 더 많았고 1년 이내 자살시도 가능성이 더 많다거나 (Hills et al., 2009), 물질남용이 자살생각에서 자살시도로 악화될 때 작용한다는 (Gould et al., 1998) 연구결과는 자살과의 관련성 연구에 있어서 외현화 문제와 물질남용을 분리하는 연구에 힘을 싣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자살요인에 영향을 주는 정신병리 차원을 경험적으로 연구한 것이 거의 없고(Verona & Javdani, 2011) 특히 알콜/약물남용을 외현화 차원에서 분리한 연구가 드물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 차원을 품행장애 및 반사회성 요인과 알콜/약물남용 요인으로 나누고 알콜/약물남용 요인이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4. 충동성

물질남용이 외현화 요인과 자살위기 관련성 이면에서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라면 물질남용은 반사회적 성향의 주요요인인 충동장애 및 공격성과 상관이 높다(Verona & Javdani, 2011).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사람은 자살위험이 매우 높으며(Bukstein et al., 1993), 충동성은 우울보다 더 많이 자살시도 및 자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Javdani et al.(2001)의 연구 결과는 공격성과 충동성이 자살시도를 촉발하는 주요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정신병리 경향성은 정서적인 특성(정서적 거리두기, 친밀함 부족, 죄의식 결핍), 대인 관계적 특성(오만함, 지배적, 기만적) 그리고 행동적 특성(반사회적, 충동적,공격적)이라는 다차원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Cooke & Michie, 2001). 정신병리의 외재화 요인인 충동성은 자살시도의 세대 간 전승의 밑바탕이 된다고 여겨졌고(Brent, Bridge, Johnson & Connolly, 1996; Brent & Mann, 2005; Brent et al., 2002) 충동성이 우울증상과 무관하게 자살 위기를 더 잘 예측했다(Apter, Plutchik & Van Praag, 1993; Apter et al., 1995; Javdani et al., 2001). 또한 이경진과 조성호(2004)의 연구에서 충동성은 자살생각의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아님을 밝힌 반면,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예측변인을 연구한 Titelman, Nillson, Svensson, Karlsson and Bruchfeld(2011)은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으로 불안, 우울, 충동성을 확인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충동성이 자살시도 유발요인으로서 작용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은 자살시도가 상대적으로 많고 비판적 인지보다 우울한 기분이나 분노감에 의해 충동적으로 자살시도를 할 수 있다는(김현순, 김병석, 2008)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 자살시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충동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5. 공격성

자살시도에는 자살생각에 머물지 않고 실행에 옮기게 하는 힘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요인의 하나가 분노와 적개심이라고 볼 수 있다. Gispert, Davis, Marsh and Wheeler(1987)는 청소년 자살의 특징을 조사한 연구에서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절망감이나 우울증보다 분노와 적대감이 자살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고효진, 김대진과 이홍표(2000)의 청소년 자살위험성 예측척도의 타당화 연구에서도 우울과 절망감보다 충동성을 포함한 적대감요인이 자살 위험성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분석이론에 따르면 자살은 사랑받지 못하고 수용되지 못하는 대상으로서의 자신을 없애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시도이다(Kernberg, 2004; Menninge, 1933). 외현화 요소의 하나인 공격성은 흔히 반항성장애 및 품행장애의 특징으로 자기 내부를 향한 공격과 거리가 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Verona & Javdani, 2011). 그러나 Titelman et al.(2011)이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대상관계에 따르는 인식의 특징을 연구한 결과, 자살시도자들은 애착의 결여로 인한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 '관계의 파괴'로 반응하였는데 이것은 공격성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자살시도자들은 공격적 전이 대상에서 투사 반응을 함으로써 타인을 향한 공격과 자신을 향한 공격간의 유사성을 드러냈다. 자살은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시도와 복수를 표현하는 노력이 결합된 소망이라는 Bowlby(1980)의 견해도 자살시도를 공격성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살시도의 예측변인으로 적개심을 내용으로 하는 공격성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과 자료수집방법

교과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한 정서행동선별검사 결과 자살위기집단으로 선별된 부산소재 중・고등학교 남녀 청소년 95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들은 2013년 5월 이후 시행된 정서행동선별검사 결과 자살위기로 진단되어 학교 상담실에서 전문상담교사의 위기관리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며 연구목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얻어 5개 평가척도를 실시하였다. 평가실시 기간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척도 평가는 전문상담교사가 상담실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우편으로 전달받았다. 전문상담교사가 근무하고 있어 설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위기관리가 가능한 학교를 대상으로 참여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교 수는 총 28개교로 전문계고 20개교 중학교 8개교이며 참여 학생 수는 총 105명으로 불성실한 응답지나 극단치를 제외한 95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남학생 39명(41%) 여학생 56명(59%), 중학생 31명(33%) 고등학생 64명(67%)이다

2. 자살시도 집단과 자살비시도 집단 구분

이혜선(2009)이 한국판 자살사고척도(K-BSI)의 타당화 연구에서 번안한 자살행동척도 SBQ-R 4문항 중 자살생각과 자살행동을 묻는 2개 문항과, 자살생각의 개념에 근거한 자살계획 1개 문항과 지금까지의 자살시도나 빈도를 측정하는 1개 문항을 포함하여 총 4개의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교과부가 시행한 정서행동선별검사 결과 자살위기집단으로서 모두 자살계획이나 자살생각 문항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자살생각이 있음을 나타냈다. 자살시도 경험을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로 응답한 경우 '자살비시도 집단'으로 '1번'에서 '5번 이상' 까지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자살시도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언어적 위협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나 자살시도 경험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자살비시도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3. 측정도구

1) 무망감척도

무망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Beck, Weissman, Lester and Trexler(1974)의 무망감척도를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와 김중술(1990)이 번안 타당화한 BHPL을 사용하였다. 총 20개 문항으로 11개의 무망감 문항과 9개 희망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희망문항은 역채점하였다. 총점은 20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무망감이 높다. 내적합치도 .93 최바올 외(2011)에서는 .87로 나타났다.

2) 품행장애/반사회성 척도

부적응 외현화 문제 중 품행장애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MMPI-A(김중술 외, 2005)의 내용척도 중 A-con을 사용하였다. 반사회적인 믿음과 태도를 묻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합치도는 .66이다.

3) 알콜/약물남용

알콜/약물남용 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MMPI-A(김중술 외, 2005)의 성격병리요인 척도(PSY-5 Scale)중 Ack(Alcohol/Drug Acknowledgment) 13문항을 사용하였다. 청소년들이 알콜이나 약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증상들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13개로 구성되어있다. 내적 합치도는 .46이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1이다.

4) 충동성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Dickman(1990)이 제작하고 신민섭, 박광배와 오경자(1991)가 번안한 '역기능적 충동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총점 0점에서 39점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으며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3이다.

5) 공격성

대인적대감 5문항과 내부적대감 3문항 총 8문항으로 구성하여 총점 0점에서 24점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대감이 높다. 대인적대감은 고효진 외(2000)가 타당화한 청소년 자살위험성 예측척도 SPS-A를, 내부적대감은 이선화, 김보미와 유성은(2012)이 차별적 정서척도(DES-IV)의 타당화 연구에서 하위척도로 사용된 내부적대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내적 합치도는 .79이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자살시도 집단과 자살비시도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자살시도와 관련된 5개 변인의 각 척도 점수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자살시도 집단과 자살비시도 집단을 의미있게 변별해주는 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자살시도와 각 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5개 주요 변인을 예측변인으로 자살시도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구분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동시판별분석과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자살시도 유/무 집단 간 주요 변인의 차이

표 1

자살시도 유무 집단 간 부적응 문제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요약

부적응 문제	자살시도 무경험집단		자살시도 유경험 집단		*F*
	M	*SD*	*M*	*SD*	
무망감	8.65	5.499	9.40	6.316	.349
품행장애	7.57	3.640	8.60	4.035	1.605
알콜/약물남용	3.78	1.902	4.88	2.225	6.113*
충동성	16.65	6.001	19.47	6.065	4.913*
공격성	6.89	5.461	11.66	5.726	16.198***

*p<.05. ***p<.001.

자살위기에 관련된 5개 주요 변인 각각에 있어서 자살시도 집단과 자살비시도 집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살행동과 관련된 5개 주요변인 중 알콜/약물남용과 충동성, 공격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

되었다. 구체적으로 자살생각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에 비해 자살시도를 하는 청소년들은 적개심이 많고 공격적인 특징이 있으며 성격적인 측면에서 더 충동적인 경향과 행동적 측면에서 알콜 등 약물에 더 의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자살시도수와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N= 95)

변인	자살시도수	무망감	품행장애	알콜/약물남용	충동성	공격성
자살시도수	1					
무망감	.103	1				
품행장애	.135	.322**	1			
알콜/약물남용	.239*	.462**	.699**	1		
충동성	.130	.393**	.416**	.441**	1	
공격성	.293*	.614**	.406**	.570**	.476**	1

*p<.05. **p<.01. ***p<.001.

판별분석에 예측변인으로 투입될 부적응 문제 변인들 각각과 자살시도 횟수와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5개 주요 부적응변인 중 알콜/약물남용과 공격성요인이 자살 시도 횟수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위기 청소년 중 알콜섭취 등 약물에 의존할수록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성이 높을수록 자살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표 1에 제시한 집단 간의 차이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2. 자살시도 경험 유무를 변별하는 주요 변인들

자살위기 청소년들의 자살시도 유무를 변별하는 주요 변인과 분류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판별분석과 동시 판별분석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개 주요 변인을 예측변인으로 자살시도 경험 유무를 준거변인으로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표는 표 3과 같다. 자살시도 유무를 변별하는 변인은 공격성과 무망감으로 나타났다.

표 3
자살시도 경험 유무에 대한 단계적 판별분석 결과

변인	Wilks' λ	df_1	df_2	F
공격성	.852	1.	93	16.198***
무망감	.802	2.	92	11.327***

***p<.001.

단계적 판별분석에서 자살시도를 유의미하게 변별하는 변인으로 밝혀진 공격성과 무망감이 자살시도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정도는 표 4와 같다. 무망감과 공격성 두 변인으로 자살시도 유무를 판별하였을 때 전체 분류 정확도는 72.6%로 나타났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자살위기 청소년을 무망감과 공격성의 두 변인만을 포함한 판별함수에 따라 자살시도집단으로 정확하게 분류한 비율은 72.4%였으며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없는 자살위기 청소년을 자살비시도 집단으로 정확하게 분류한 비율은 73.%였다. 자살시도 집단이 비시도 집단으로 잘못 분류된 비율은 27.6%였으며 자살비시도 집단이 시도집단으로 잘못 분류된 비율은 27%였다. 무망감과 공격성 두 변인만을 활용하여 자살위기 청소년을 자살시도 집단과 비시도 집단으로 변별할 때 정확분류율이 오분류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
단계적 판별분석에서 유의한 변별 변인들의 자살시도 분류 행렬표

Original Group		Predicted Group		
		시도없음	시도있음	전체
자살시도	시도없음	27(73%)	10(27%)	37
	시도있음	16(27.6%)	42(72.4%)	58
전체		43	52	95

정확분류율= 72.6% 오분류율= 27.4%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살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진 5개 요인 모두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동시 판별분석의 분류행렬과 분류정확도는 표 5와 같다. 예측변

인 5개를 모두 사용하여 자살시도 유무 집단을 변별할 때 정확하게 분류된 비율은 71.6%였으며 무망감과 공격성 2개 변인만 적용한 단계적 판별분석의 결과 정확분류율보다 1% 낮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실제로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자살시도 집단으로 분류한 비율은 70.7%로 단계적 판별 분석의 함수로 분류한 경우보다 정확분류율이 1.7% 낮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5

동시판별분석에서 유의한 변별요인들의 자살시도 분류행렬표

Original Group		Predicted Group		
		시도없음	시도있음	전체
자살시도	시도없음	27(73%)	10(27%)	37
	시도있음	17(29.3%)	41(70.7%)	58
전체		44	51	95

정확분류율= 71.6% 오분류율= 28.4%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자살 위기 청소년들 중 자살을 생각하는데 머물고 자살시도를 하지 않은 집단과 자살생각과 함께 자살시도의 경험이 있는 집단을 구분하는 변인을 확인하고 자살위기 청소년들의 자살시도를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수행되었다. 부산시내 28개 중고등학교 학생 중 2013년 정서행동선별검사 결과 자살위기로 진단된 95명을 대상으로 무망감, 품행장애, 알콜/약물남용, 충동성, 공격성 변인을 측정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자살시도 예측변인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살위기 청소년의 자살시도와 관련된 요인

본 연구의 대상인 자살위기 청소년 95명 중 자살시도를 경험한 수는 58명이고 그 중, 남학생이 13명 여학생이 45명으로 여학생의 자살 시도율이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순홍 외(2003)의 자살생각 연구에서 여학생의 자살생각이 52.1% 남학생의 자살생각은 31.2%로 여학생의 자살생각이 더 높은 것과 일관성이 있지만, 자살생각이나 자살위협은 여학생이 높지만 자해행동이나 자살시도에는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Lilienfeld와 Hess(2001)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로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 특히 여학생들이 자살위기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자살시도 집단과 비시도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무망감과 품행장애 요인은 집단 간 차이가 무의미하였고 알콜/약물남용, 충동성, 공격성 요인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살시도 횟수와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알콜/약물남용과 공격성이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과 일치한다. 이것으로 자살시도 집단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이 알콜/약물남용과 공격성임을 알 수 있다. 즉, 단지 생각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술을 더 많이 마시거나 약물에 의존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적인 성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품행장애를 포함한 외현화 문제는 자살시도와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신의진, 2003; Bridge et al., 2006; Hills et al., 2009), 우울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자살시도에 기여하는 것으로 외현화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Hills et al.(2009)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품행장애 요인이 자살시도 집단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알콜/약물남용을 청소년의 외현화 장애로부터 분리시켜 연구한 결과 품행장애는 자살위기와 무관하고 알콜/약물남용 요인은 자살시도에만 관련되는 것으로 밝힌 Verona와 Javdani(201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로써 자살위기 청소년들 중 자살시도를 하는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 청소년들보다 술이나 약물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살시도는 자살생각과 구별되는 것으로 단지 생각에 머물지 않고 실행에 옮기게 하는 힘이 작용한다는 관점에서 공격성과 충동성은 주목받는 설명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공격성이 품행장애 즉 외현화요인의 성격적 차원으로서 자살시도와 무관하다고

보는 견해(Verona & Javdani, 2011)와 달리 Titelman et al.(2011)은 타인을 향한 공격성과 자신을 향한 공격성 간의 유사성을 밝히고 공격성을 자살시도자들의 특징으로 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Titelman et al.(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고효진 외(2000)가 충동성을 포함한 적대감요인을 자살위험 예측요인으로 확인한 것과도 일치한다.

본 연구 결과 충동성은 자살시도 횟수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으나 공격성은 자살시도 횟수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고, 자살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자살시도집단 청소년들이 자살비시도 집단 청소년들 보다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더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자살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 중에서 충동적이거나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적인 청소년들은 자살생각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더 심각한 자살위기에 처해있다고 하겠다.

Beck(1986)이 자살의 가장 강력한 단일 예측요인으로 무망감을 제시한 이후 무망감이 청소년의 자살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양하다. 무망감의 직접적인 영향보다 무망감과 사회적 지지간의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주장한 엄태완(2008)과 심리적 극통이 무망감과 자살을 매개한다고 밝힌 Holden, Mehta, Cunningham and Mclead(2001)는 무망감이 자살에 미치는 다양한 경로와 변인간의 역동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결과 무망감은 자살시도 횟수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으며 자살시도 집단을 설명하지 못하므로 단일요인으로서 자살을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본다.

2. 자살시도의 예측변인들

자살시도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동시판별분석에서는 자살시도 유무에 대한 정확분류율이 71.6%, 단계적 판별분석에서는 72.6%로 나타나 단계적 판별분석 결과 도출된 함수와 변인이 더 예측력이 높았다. 단계적 판별분석 결과 투입된 5개변인 들 중 공격성과 무망감 두 변인이 자살시도 유무를 변별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자살위기 청소년을 무망감과 공격성의 두 변인만을 포함한 판별함수에 따라 자살시도집단으로 정확하게 분류한 비율이 72.4%로 5개 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동시판별분석 결과인 70.7% 보다 높았다. 이런 연구 결과에 따라 예측변인 수의 증가에 따르는 자료수집비용의 문제나 충분한 설명

력을 감안할 때, 무망감과 공격성 두 개의 변인만으로 판별함수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자살위기 청소년의 자살시도 가능성 유무를 변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특히 공격성 변인은 자살시도 횟수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고 자살시도 유무집단 차이를 설명하며 자살시도를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기는 발달적 과도기로서 불안정 애착행동체계가 더욱 활성화되기 때문에(Lopez & Brennan, 2000)부모나 친구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로 인하여 우울과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자살시도자들의 애착을 연구한 Titelman et al.(2011)에 따르면 애착의 결여는 이로 인한 불안을 방어하기 위한 '관계의 파괴' 반응을 야기하는데 이것은 곧 공격적 행동이며, 공격적 전이 대상에서 투사 반응을 함으로써 타인을 향한 공격과 자신을 향한 공격이 일치되는 경우 자살행동이 일어난다. 애착결여가 공격성을 통해 자살에 이르게 하는 근원적인 요인이라는 Titelman et al.(2011)의 견해는 공격성이 자살시도를 예측하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한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공격성과 달리 무망감 변인은 자살시도 횟수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자살시도 유무집단 차이를 설명하지는 못하였으나 자살시도집단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Beck(1986)은 무망감을 자살의 가장 강력한 단일 예측요인으로 제시하였으나 이후의 연구결과들은 무망감이 다른 요인과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자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려준다. 엄태완(2008)은 무망감이 사회적 지지의 유무에 따라서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하였고 Holden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극통이 무망감과 자살을 매개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 무망감은 자살시도 횟수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고 자살시도 집단과 자살비시도 집단의 차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단계적 판별분석의 함수에 진입한 유의미한 변인으로 드러남으로써 자살시도를 예측하는 주요변인으로 확인 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무망감은 다양한 경로와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무망감이 단일요인으로서는 자살시도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자살생각, 자살시도, 자살완결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살위기를 예측하며(박경, 2004; 이현지, 김명희, 2007) 공격성과 더불어 작용할 때 자살시도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중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살위기 청소년의 자살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여 판별분석에 포함시켰던 충동성, 알콜/약물남용, 품행장애는 자살시도의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지지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변인들은 무망감 특히 공격성과 높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이루었다. 물질남용은 반사회적 성향의 주요인인 충동장애 및 공격성과 상관이 높다는 Verona와 Javdani(2011)연구 결과와 관련지어볼 때 충동성과 알콜/약물남용 그리고 품행장애가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무망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알콜/약물남용에 의존하게 되고 충동적으로 반사회적인 행동에 관여하며 이러한 비합리적인 대응방식이 부정적인 피드백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 같은 추측들이 다양한 경로분석이나 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Ⅵ.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청소년 자살이 증가함에 따라 교과부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살위기 청소년들을 집중관리하고 있는 바, 평가결과 자살위기로 분류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선택적 지원과 위기개입이 요구된다. 자살생각을 호소하는 자살위기 청소년 중 자살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위기개입과 치료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변별기준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교육현장에서 청소년을 돕는 다수의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인력들이 업무의 비효율성을 겪고 있다. 교과부 차원에서 실시되는 정서행동선별검사 자살위기진단은 걱정 및 생각, 기분 및 자살, 학습과 인터넷, 친구문제, 규칙위반 및 가해행동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히 자살위기 진단에 그칠 우려가 높다. 자살생각이 높은 자살위기청소년들 중 집중적인 치료개입이 요구되는 적합한 대상을 선별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위기수준과 자살시도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핵심요인으로 평가도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자살시도를 예측하고 자살시도 횟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적대감 및 공격성요인을 포함한 실효성있는 자살위기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자살시도 집단과 비시도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낸 알콜/약물남용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무망감의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예측력이 높은 척도를 개발하는데 본 연구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자살위기 진단을 위한 척도의 개발 뿐 아니라 자살예방의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즉 자살생각을 가진 청소년들에 대한 무차별적 개입에서 나아가 자살시도의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구별하여 치료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자살시도의 강한 예측변인인 적대감 및 공격성이 욕구좌절에 따른 분노의 표현이라고 본다면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좌절과 스트레스를 다루는 치료적 상담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기 애착불안이 가족갈등이나 친구갈등으로 인해 활성화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공격으로 표현된다는 관점에서는 신뢰롭고 안정적인 관계형성을 돕는 치료적 개입과 교육활동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무망감을 해결하도록 청소년들을 도와야 한다. 인지발달에 따라 미래조망능력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무망감을 느낀다는 것은 심각한 좌절을 의미하므로 자살시도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조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미래 변화에 대한 가능성과 방법에 관한 현실적이고 가용한 대안을 나눔으로써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자살시도 집단이 알콜/약물남용이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볼 때 청소년들이 알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알콜/약물남용 청소년에 대한 알콜중독 예방교육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자살생각을 가진 자살위기 청소년들 중 자살시도자와 비시도자를 비교하여 자살시도의 예측변인을 밝힌 희소가치를 지닌 연구로서 의의를 지니지만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안고 있다.

연구대상의 희소성과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노력과 도움에도 불구하고 95사례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통계분석이 유의미한 충분한 사례를 수집하여 다른 중요 변인을 함께 연구한다면 자살시도의 예측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후속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자살시도의 예측요인으로 확인된 공격성이 정신분석학적으로 애착의 결여에 근거한다고 보면, 애착의 결여가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는 발달과도기로서 애착의 불안정이 활성화되는 시기이고 교우관계, 이성교제 등 대인관계와 관련되어 소외감과 왕따 등 학교부적응으로 확대되면 자살에 이를 수 있다. 자살시도의 다양한 예측요인을 규명하는 일은 자살위기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자살시도 횟수에 있어서 남녀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자살위기 남학생 39명 중 13명(33%), 여학생 56명 중 45명(80%)이 자살시도를 함으로써, 자해행동이나 자살행동에는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Lilienfeld & Hess, 2001)일반적인 견해와 상반된다. 본 연구는 자살위기를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로 이원화한 것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자살생각, 자살위협, 의도성, 목적 등에 따라 자살위기 수준을 다양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자살시도 예측변인으로 제시된 5개 모두가 동시판별분석 결과 유의미한 예측력을 보였고, 변인 간 상호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각 변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자살시도에 이르는지에 대한 관계모형의 검증이 요구된다. 더 깊고 열정적인 후속연구를 통해 자살위기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방법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김순홍, 최준영, 양철호, 강만철, 이용환, 오익수 외 (2003). **한국 청소년의 삶과 의식 구조.** 광주: 사회연구소.

김중술, 한경희, 임지영, 민병배, 이정흠, 문경주 (2005). **MMPI-A 다면적 인성검사-청소년용.** 서울: 마음사랑.

김진희, 송병국, 고은미, 이채식, 최창욱, 임형백 외 (2002). **청소년 문제 행동론: 3장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 (pp. 72-75). 서울: 학지사.

김현순, 김병석 (2008). 자살생각과 그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96-106.

고효진, 김대진, 이홍표(2000). 청소년 자살위험성 예측척도의 타당화 연구(1). **신경정신의학, 39**(4), 680-690.

박경 (2004). 청소년의 부정적인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 자존감, 무망감의 중재효과 및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2**(2), 96-106.

배성구 (1998).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과 행동특성: 남녀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산광역시 교육청 (2012). **학생 정서행동선별검사 및 관리 매뉴얼.** 부산: 부산광역시 교육청.

서동우 (2001). 자살에 의한 사망,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 **보건사회연구, 21**(1), 106-125.

신의진 (2003). 고위험 자살 청소년에 대한 평가와 대처방안,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청소년보호위원회세미나 자료집,** 59-74.

엄태환 (2008). 청소년의 무망감 관련요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중재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15**(5), 211-237.

이경진, 조성호 (2004).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67-685.

이선화, 김보미, 유성은 (2012). 차별적 정서척도(DES-IV)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1), 147-167.

이현지, 김명희(2007).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무망감,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14(3), 243-264.

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6). 비행청소년의 자살사고 예측변인. **청소년 상담연구,** 14(1), 49-62.

이혜선 (2009). 한국판 자살척도(K-BSI)의 타당화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4), 1155-1173.

신민섭 (1993). **자살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기도피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 박사학위 청구논문.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1991). 우울증과 충동성이 청소년들의 자살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86-297.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 임상,** 9(1), 1-19.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차미영 (2010).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우울의 효과. **교육학연구,** 48(2), 93-122.

최바올, 고은영, 이소연, 이은지, 서영석 (2011). 부적응적 완벽주의, 무망, 우울, 심리적 극통 및 자살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93-716.

통계청(2012). **2011 사망원인 통계결과.** 서울: 통계청.

하정희, 안성희 (2008).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스트레스, 대처방식, 완벽주의, 우울, 충동성의 구조적 관계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49-1171.

Apter, A., Gothelf, D., Orback, I., Weizman, R., ratzoni, G., Harevan, D., et al. (1995). Correlation of suicidal and violent behavior in different diagnostic categories in hospitalized adolescent pati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4*, 912-918.

Apter, A., Plutchik, R., & Van Praag, H. M, (1993). Anxiety, violent behavior.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87*, 1-5.

Ayyash-Abdo, H. (2002). Adolescene suicide: An ecological approach. *Psychology in the School, 39*(4), 459-475.

Beck, A. T., Weissman, A., Lester, D., & Trexler, L. (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ness sca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2), 861-865.

Beck, A. T., Kovas, M., & Weissman, A. (1975). Hopplessness and suicidal behavior: An overview.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34*(11), 1146-1149.

Beck, A. T. (1986). Hopplessness as a predictor of eventural suicide.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 487*, 90-96.

Beevers, C. G., & Miller, I. W. (2004). Perfectionism, cognitive bias, and hopelessness as prospective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4*(2), 126-137.

Borgers, J., Spirito, A., & Donaldson, D., (1998). Reasons for adolescent suicide attempts: Associations with 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7*(12), 1287-1293.

Bostwick, J. M., & Pankratz, V. S. (2000). Affective disorders and suicide risk: A reexamin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7*(12), 1925-1932.

Bowlby, J. (1980). *Attac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I.* New York: Basic Books.

Brausch, A. M., & Gutierrez, P. M. (2010). Difference in non-suicidal self-injury and suicide attempts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9*, 233-242.

Brent, D. A., & Mann, J. J. (2005). Family genetic studies,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Medical Genetics Part C: Seminars in Medical Genetics, 133C*, 13-24.

Brent, D. A., Bridge, J., Johnson, B., & Connolly, J. (1996). Suicidal behavior runs in families: A controlled family study of adolescent sucide victim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 1145-1152.

Brent, D. A., Oquendo, M., Birmaher, B., Greenhill, L., Kolko, D., Stanley, B., et al. (2002). Familial pathways early - onset sucide attempt.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3*, 1080-1086.

Bridge, J. A., Goldstein, T. R., & Brent, D. A. (2006). Adolescent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 372-394.

Bukstein, O. G., Brent, O. A., Perper, J. A., Moritz, G., Baugher, M., Schweer, J., et al. (1993). Risk factors for completed suicide among adolescents with a lifetime history of substance abuse: A case - control study.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88*, 403-408.

Cooke, D. J., & Michie, C. (2001). Refining the construct of psychopathy. Towards a hierachical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13*, 171-188.

Dickman, S. J. (1990). Fuctional and dysfuctional impulsiv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476-483.

Esposito, C. L., & Clum, G. A. (2003).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diagnostic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the prediction of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2*, 386-395.

Evans, E., Howton, K., & Rodham, K. (2004).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phenomena in adolescents: A systematic review of population - based studi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 957-979.

Gispert, M., Davis, M., Marsh, L., & Wheeler, K. (1987). Predictive factors in repeated suicide attempts by adolescents.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38,* 90-393.

Goldstone, D. B., Daniel, S. S., Reboussin, B. A., Reboussin, D. M., Kelley, A. E., & Frazier, P. H. (1998). Psychiatric diagnoses of previous suicide attempters, first time attempters, and repeat attempters on adolescent inpatient psychiatry unit.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7*, 927-932.

Gould, M. S., Greenberg, T., Velting, D. M., & Shaffer, D. (2003). Youth suicide risk and preventive interventions: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2*(4), 386-405.

Gould, M. S., Kng, R., Greenwald, S., Fisher, P., Schwab-Stone, M., & Kramer, R., et al. (1998). Psychopathology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7*(9), 915-923.

Harwood, D., & Jacoby, R. (2000). Suicidal behavior among the elderly. In K. Howton, & K. Van Heering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pp.275-291). John Wiley & Sons: Chichester.

Herba, C. M., Ferdinand, R. F., Van der Ende, J., & Verhulst, F. C. (2007). Long - term associations of childhood suicide ide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6,* 1473-1481.

Hills, A. L., Afifi, T. O., Cox, B. J., Bienvenu, O. J., & Sareen, J. (2009). Externalizing psychopathology and risk for suicide attempt: Cross - sectional and longitudinal findings from the Baltimore epidemiologic catchment area stud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7*, 293-297.

Holden, R. R., Mehta, K., Cunningham, E. J., & Mcleod, L. D. (2001).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a scale of psychache.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3*(4), 224-232.

Javdani, S., Sadeh, N., & Verona, E. (2001). Suiciality as a function of Impulsivity: Callous - unemotional traits and depressive symptoms in youth. *Journal of Psychology, 120*(2), 400-413.

Kandel, D. B., Ravens, V. H., & Davis, M. (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2), 289-308.

Kernberg, O. F. (2004). The risk of suicide in severe personality disorders: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In O. Kernberg (Ed.), *Aggressivity, narcissism, and self-destructiveness in the psychotherapeutic relationship* (pp.192-194). New Haven & Nondon: Yale University Press.

Lewinsohn, P. M., Rohde, P., & Seeley, J. R. (1996).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Prevalence, risk factors, and crinical implication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3*, 25-46.

Lilienfeld, S. O., & Hess, T. H. (2001). Psychopathic personality traits and

somatization: Sex differences in the mediating role of negative emotionality.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Assessment, 23,* 11-24.

Lopez, F. G., & Brennan, K. A. (2000). Dynamic process underlying adult attachment organization: Toward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 healthy and affective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3), 283-300.

Marttunen, M. J., Aro, H. M., Henriksson, M., & Lonnqvist, J. K. (1993). Antisocial Behavior in Adolescent suicide.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89,* 167-173.

Menninger, K. A. (1933). Psycholanalystic aspects of suicid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15*, 376-390.

Muehlenkamp, J. J., & Gutierrez, P. M. (2007). Risk for suicide attempts among adolescents who engage in non-suicidal self injury.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1*, 1-14.

O'Carroll, P. W., Berman, A. L., Maris, R. W., Moscicki, E. K., Tanney, B. L., & Silverman, M. M. (1996). Beyond the tower of babel: A nomenclature for suicidolog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6*(3), 237-252.

Papakostas, G. I., Peterson, T., Pava, J., Masson, E., Worthington, J. J., Alpert, J. E., et al. (2003).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in outpatients with impact on treatment outcom.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1*(7), 444-449.

Peter, M. L., Paul, R., & John, R. S. (1994).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furture adolescent suicide attemp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2), 297-305.

Ross, S., & Heath, N. (2002). A study of the frequency of self mutilation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 67-77.

Rowe, C. L., Liddle, H. A., & Dakof, G. A. (2001). Classifying clinically reffered adolescent substance abusers by level of externalizing and interalizing symptoms. *Journal of Child and Asolescent Substance Abuse, 11*, 41-65.

Shaffer, D. (1998). The epidemiology of teen suicide: An examination of risk

factors.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49*, 36-41.

Shaffer, D., Gould, M. S., Fisher, P., Trautman, P., Moreau, D., & Kleinman, M., et al. (1996). Psychiatric diagnosis in child and adolescent suicid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 339-348.

Titelman, D., Nillson, A., Svensson, B., Karlsson, H., & Bruchfeld, S. (2011). Suicide-neerness assessed with PORT, the perfect-genetic object-relation and a reliability study. *Bulletin of Menninger Clinic, 75*(4), 295-314.

Verona, E., & Javdani, S. (2011). Dimension of adolescent psycholpathology and relationships to suicide risk indicator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40*, 958-971.

Weissman, M. M., Wolk, S., Goldstein, R. B., Moreau, D., Adams, P., Greenwald, S., et al. (1999). Depressed adolescents grown up.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1*, 1707-1713.

ABSTRACT

Predictors of attempts at suicide: A focus on the attune adolescent facing a suicidal crisis

Joung, Myosoun* · Seo, Sugyu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predictors that would differentiate suicidal teens with experience of suicide attempts from those without previous experience of suicide attempts. Assessment Scales on hopelessness, conduct disorder, alcohol-substance abuse, impulsiveness and aggressiveness were administered to 95 suicidal teens who are currently under the charge of school-counselors in Pusan middle and high schools.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discriminant analyses with the 5 factors as predictors and the status (i.e., presence, absence) of experience of suicide attempts as the criterion variable. The results of the discriminant analysis (Stepwise) revealed that only two predictors (i.e., hopelessness and aggressiveness) were significant. The discriminant function with these two predictors yielded the overall correct classification percentage of 72.6%, indicating the degree of sensitivity. The percentage of correctly classified suicidal teens who had actually attempted suicide into a group with experience of suicide attempts was approximately 72.4%. These results imply that hopelessness and aggressiveness operate as significant predictors of suicide attempts in suicidal teens. Thus, these predictors need to be included in the procedures for screening suicidal teens at risk of suicidal behavior.

Key Words : suicide attempt, hopelessness, aggressiveness

투고일 : 2014. 3. 9, 심사일 : 2014. 5. 9, 심사완료일 : 2014. 5. 15

* Wonyea High-School
** Pusan National University